

□ 미국 대학신문을 살펴본다

학외 소식까지 담아내는 지역일간지

이 동 신
(언론정보학부 교수)

미국의 대학신문은 우리나라의 대학신문과 여러 가지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대학신문들이 학교차원의 홍보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는 데 비하면 미국의 대학신문은 이것에 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적 기능도 중시한다. 미국의 큰 대학들은 대개 작은 도시에 있다. 한국의 대학에서 발행되는 대학신문들은 대학만을 대상으로 발행되지만 미국의 대학신문들은 대개 일간지이다. 따라서 내용도 교내에 관련되는 소식만을 채운다기보다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 소식을 모두 포괄하는 커뮤니티뉴스 페이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

라서 미국의 대학신문은 지역사회에서 일반신문에 대한 강력한 경쟁지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교내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한국의 대학신문과 다를 바 없지만 교외소식에 있어서는 다른 일간지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전체적인 내용은 대학의 언론답게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일반신문보다 훨씬 비판적인 내용을 실는다.

특히 사설이나 독자편지는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이 실린다. 또 만화나 퀴즈 등 오락적인 내용은 많지 않지만 있다면 매우 풍자적이고 냉소적인 내용이 실린다.

특히 미국의 대학신문은 한국의 경우처럼 긴 학술논문식 기사를 실지 않는다. 논문을 게재하는 데는 논문을 위한 전문지가 따로 많기 때

문이기도 하고, 또 일간지는 생활권을 비롯한 각종 생활정보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따로 일반기사를 두지 않고 학생들이 기자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 범위는 국제뉴스를 다룰

학교뿐 아니라 해당지역까지 포괄하는 상업지.

학교와 독립된 구조, 독자적인 기능

사회 비판적이고 진보적 논조 가져

만큼 광범위하다. 대학신문사에는 국내는 물론 국제 외신사들의 뉴스를 받을 수 있는 터미널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

그 형식에 있어 타블로이드로 발행되는 것을 제외하면 미국의 대학신문은 표면적으로는 일반지와 다를 없는 상업지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신문이 무료로 독자들에게 배포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대학신문은 유료로 판매된다. 광고의 경우 특히 우리나라의 학교신문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진다. 학생객들을 위한 식당, 의류점 광고도 흔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광고도 실려 일

간 상업지로서의 광고기능을 그대로 하고 있다. 미시간대의 신문인 미시건스테이트뉴스(Michigan State News)의 경우 연

간 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발행

부수 5만여의 신문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영업행위 때문에 미국의 대학신문은 학교로부터 거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그 성격도 대학지로서의 성격과 함께 상업지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기할 것은 미국의 대학신문들은

기자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훈련장의 기능도 한다는 것이다. 신문방송학의 많은 강의들은 대학신문과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보도취재론이나 기사 작성론같은 강의들은 수강생들이 대학신문의 제작에 직접 참여하여 이루어진다. 매일 신문을 발행하여야 하는 대학신문사로서는 부족한 인원을 보충할 수 있어 좋고,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취재와 보도를 통해서 사회를 배우고 전문적인 기자가 되기 위한 충분한 경험을 얻는다.

미국의 대학신문들은 이렇게 대학과 지역사회의 중간에서 학생들과 지역사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이슈를 중심으로 한 언론적 기능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신문들도 캠퍼스 내의 좁은 영역에서만 활동할 것이 아니라 좀더 넓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

□ 대학신문 인터넷 사이트 어떻게 운영되나

전자신문의 활로, 아직은 가시밭길

김 중 현
(신문방송국 기사)

인터넷을 활용한 매체의 화려한 모습이 어지러울 정도다.

유력 일간지들이 주도해 온 인터넷 상의 전자신문 발행은 인쇄매체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즉 이윤의 감소와 독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변신을 강요당해 온 신문에게 있어 멀티미디어의 성격으로 발전되어 온 인터넷은 좋은 기회로 다가왔다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신문도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10여 년 전 대학내에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매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대학신문은 그 영향력이나 진지함에서 존재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대학의 신문들은 영상매체의 진출과 다양한 매체의 난립으로 그 존립의 기반마저 위협할 처지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문은 고민 중이던 대학신문에 하나의 활로가 될 듯하다. 이미 우리 신문을 비롯하여 몇몇 대학신문사들이 전자신문의 형태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단순한 기사 서비스의 범주를 벗어나 다양한 사진 이미지와 동영상 등의

형태로 진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 대한 관심과 열기에 비해 실제로 전자신문의 형태로 운영하는 대학신문들이 의외로 적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현재 인쇄매체와 전자신문의 형태 두 가지로 병행하여 운영되는 대학은 우리학교를 비롯하여, 고려대, 중앙대, 이화여대, 동의대, 포항공대, 한림대 등 15개 대학에 불과하다. 즉 사회적인 인식에 비해 그 활용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난항 겪는 활자신문의 대안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신문사에서 운영하는 UNN(University News Network): URL-<http://UNN.Net> 시스템 개발자인 서춘현씨는 "몇몇 대학은 대학 당국자의 반대로 전자신문 사이트가 개설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교내 뉴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대외로 유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점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다"라면서 대학신문들의 적극적인 인터넷 활용이 어렵다고 말한다.

학교 당국의 비협조가 한 가지 원인이라면 전자신문 사이트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 부족에도 또 다른 원인이 있다.

즉 신문을 발행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하기 힘들다는 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인력면에서도 지속적인 기사 업데이트를 책임지고 시스템이나 홈페이지를 관리해줄 만한 인력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신문의 홈페이지 개설은 쉬운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운영상의 허점이 자주 드러난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기사 혹은 정보의 업데이트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홈페이지를 개설한 시점에서 1년이 지나도 계속 동일한 기사와 정보가 전방위적인 독자들의 욕구를 채워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불쾌감마저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홈페이지를 개설한 각 대학신문사 중에서도 업데이트가 가장 신속하기로 평가가 나 있는 반면에 적지 않은 수의 신문은 업데이트의 소홀로 인해 독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애써 개설한 홈페이지가 지속적인 관심을 획득하고 대안 언론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속적인 기사의 업데이트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각 사 단위로 떨어져 있는 기사들을 어떻게 엮는가에 달려 있다. 한국 언론연

구원에서 운영하는 기사 데이터 서비스인 KINDS의 형태와 같이 각 대학신문의 자료를 하나로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성 언론들에 의해 외면당하는 사안들이 상대적으로 대학신문에서는 주목받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각 사 단위의 기사 축적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대학신문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대학신문 기사 연동망'은 그러한 점에서 그 추이가 주목된다고 할 것이다.

영상·소리 겸비한 전자신문 시도 요망

마지막으로 단순한 기사 텍스트 위주의 서비스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소리와 영상까지 포함하는 토털 미디어로서 기능을 시도할 만하다. 이는 인쇄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다양하게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전달과 오락, 교육의 기능까지 포함하는 기능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갈 때 대학신문의 인터넷 사이트는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활용도 높은 매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기사가 단순히 인터넷에 뒀다고 하여 더 읽혀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종이로 만나는 신문이 지니는 장점과 전자신문에서만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다르듯이 인터넷 상에 구축된 대학신문들의 역할은 각별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나 네트워크 상에까지 사회의 권력들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새로운 공동체의 중심지로서 운동을 펼칠 때 지난 날 대학신문이 누렸던 선도적인 임무도 다시 되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각 대학의 신문 및 인터넷 사이트 표지

통신하모니

한국통신
Korea Telecom

자꾸 오릅니다. 등록금도, 하숙비도, 책값도

즐거먹는 라면값까지 오르니까 슬슬 화가 납니다.

당장 하루 운동이 크게 축나니까요

그 집 라면 값이 또 올랐어?

그런데 라면 값이 조금만 올라도 화를 내는 친구도 휴대폰은

큰 부담없이 구입하고 한달에 몇만원씩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딘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합리적인 소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때.

바른 이성을 가진 대학생부터 합리적인 소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전화요금으로 내린
3분 45원의 시티폰

합리적인 대학생이라면 시티폰으로 통화합니다.

4월 말
통화요금에 대폭 내렸습니니다

- 통화료 3분 45원으로 일반전화요금 적용
- 기본료 3,500원으로 46% 인하
- 가입비 10,000원으로 50% 인하(기존 2만원)
- 페이 및 DCP가입시 가입비 추가 50% 할인

통화품질에 대폭 향상됩니다

- 각 기지국의 통화출력을 확대하여 통화방향이 대폭 확대됩니다.
- 기지국의 재배치로 통화가능지역이 훨씬 늘어납니다.
- 집에서 디지털 무선전화기로 길에서는 시티폰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유무선복합전화로 달라졌습니다. (DCP 구입시)

♥가정의 달 5월-가족사랑 전화달아주기 캠페인

5월에 전화를 신청하시는 고객이 시티폰을 함께 신청하시면 시티폰 단말기를 50% 할인해드립니다.

신청 및 문의 ☎ 080-2002-007

■ 새로워진 시티폰과 DCP를 전국 시티폰 서비스지역의 전화국에서 확인하세요! (가입신청 전화 및 한국통신 대리점)

한국통신 시티폰

늘 고객과 함께하는 전화국은 한국통신입니다.